

사조위 김해공항 에어부산 사고조사 현황

-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사조위”)의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조사 진행 현황(‘25.2.3. 14시 기준)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‘25.2.3(월) 사조위, 프랑스 사고조사당국(BEA) 및 관계 전문기관(국립과학수사연구원, 경찰 과학수사대, 소방)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(40여명)은 현장감식 사전회의*(오전 9시)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10시부터 시작하였으며, 18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
- * 현장감식 계획, 임무별(발굴 → 운반 → 분류 및 분석) 세부절차, 현장 안전 등
-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,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,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등으로 이송하여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사조위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초기 조사*를 진행 중에 있으며,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.
- *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, CCTV 영상분석, 블랙박스 분석 등

담당 부서	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	책임자	사무국장	김수정 (044-201-5422)
			사무관	배기후 (044-201-5447)
			사무관	조계웅 (044-201-5442)

